

[25~2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하루는 양창곡이 벽성산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었다. 양창곡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꽃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 있고, 맑은 시내와 빼어난 봉우리는 골짜기마다 둘러싸여 있다. 양창곡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비단 가사를 입고 석장을 손에 들었으며, 꽃 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보살은 양창곡을 보더니 길게 읊을 하며 말했다.

“문창성은 그동안 별로 없으셨소?”

양창곡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홍란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게요?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의 관음보살이외다. 옥황상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서(兵書)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말이 끝나자 석장을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양창곡이 놀라서 깨니 한바탕 ㉠ 꿈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만, 단서(丹書) 한 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양창곡이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소매 속에 잘 갈무리하고 내려왔다. 다시 별당에 들렀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양창곡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와 단서를 꺼내 보았다. 과연 천상 무곡성의 천문 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양창곡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는가.

상자 안에 넣어 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달빛을 띠고 이르렀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달나라 향아가 광한전에서 내려온 듯, 은하수에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하였다. 양창곡은 정신이 혼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중략)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료하여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밤이 깊고 하늘은 개였으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맑습니다. 객관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양창곡이 흔쾌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이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양창곡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했다.

“첩이 청루 생활 10년 동안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회를 위로할 수 있었지요. 물 위의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이제 밝은 달을 대하니 한번 등글어졌다 한번 이지러졌다 하는 ㉡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

“그대는 내가 일찍 유배에서 돌아갈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던 말이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지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 꿈을 꾸었습니다.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홀연 우렛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기는 하지만, 상공께선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양창곡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오. 황태후께서는 황상을 위하여 매년 이날을 맞으면 방생지에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 주고 천하에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싶소.”

그러자 벽성선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은혜로운 명령으로 씻어 낸다면 이 어찌 상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남방에 어떤 새는 ‘난(鸞)’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들어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울다가 기운이 쇠진해져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록 청루의 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공을 모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 듯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속에 종적을 감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을 면해 볼까 합니다.”

양창곡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구려.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 할 거요. 벽성산 머리의 ㉣ 동근 달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겠소.”

벽성선이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군자의 말씀은 천금과 같습니다. 첩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 남영로, 「옥루몽」 -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다.
- ㉡ 양창곡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벽성선의 자태에 매료되었다.
- ㉢ 양창곡은 보살에게 받은 책을 여러 번 읽지 않고도 병법을 익혔다.
- ㉣ 벽성선은 양창곡에게 이별 후에는 자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하였다.
- ㉤ 벽성선은 난새를 언급하며 양창곡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1)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25-28번, 고전소설

26. <보기>를 참고하여 ㉠,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옥루몽」은 천상계에서의 꿈을 통해 천상계 인물인 문창성, 제천선녀, 홍란성 등이 양창곡, 벽성선, 강남홍 등과 같은 지상계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윗글에서 양창곡과 벽성선이 꾸는 꿈은 ‘꿈속의 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꿈속의 꿈’은 인물들의 정체 암시, 인물들의 행동 유도, 지상계에서 발생할 사건 예시 등의 서사적 기능을 한다.

- ①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천상계의 문창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보살은 장차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사랑하는 인물이 본래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에서 벽성선이 경험한 것은 양창곡이 조만간 사면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 ⑤ ㉡에서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재회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대비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과 ㉡ 모두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은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가, ㉡는 인물이 부정하는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 ⑤ ㉠은 인연의 단절에 대한 슬픔이, ㉡는 인연의 지속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

삼아(三兒)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과 선연(嫵妍)한 품성이 비상특이하고 문견(聞見)이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陣)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왈,
 “여자의 도(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勘審)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며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됨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특별히 대죄할 것이매 내 차라리 죽어 모르코자 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삼소저 이 말을 듣고 대경 사죄 왈,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

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올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이 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요.”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쩐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자주, 벽주, 명주)는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진원 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육 인(六人)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한편, 복권이 변방을 침노하자 육 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차설. 육 인이 원양성 십 리에 주둔하고 계교를 의논할 새 명주 왈,
 “㉠ 여차여차 하면 어떠하뇨?”

최완이 대회 왈,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아등(我等)이 태수께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문루에 올라 바라본 즉 양인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汝等)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뇨?”

양인(兩人)이 왈,
 “아등은 절강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으며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양인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읊고 왈,
 “아등은 원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자생하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뻐 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파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諫)왈,
 “양진이 상대하매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하느뇨.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 읊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렇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낯이라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 왈,

2)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42-45번. 고전소설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육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심복이라. 일을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⑥ 여차여차 덜치면 아등이 함력 내응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가 삼경 후 북병에게 패한 채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용이라 하여 부장 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향하고 깃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이 불의지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달아나니라. 차시 최완이 본진에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大號) 왈,

[A]

“우리 북한(北漢)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완이 급히 군을 몰아 깃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여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주 고성 왈,

“장임 적자는 단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 붙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의 칼이 번듯하며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할 일 없어 항복하는지라.

- 작자 미상, 「옥주호연」 -

*특시지주: 기다리던 때를 얻게 된 때.

4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43.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은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유생’은 ‘삼소저’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 ‘왕씨’를 책망하고 있다.
- ③ ‘왕씨’는 ‘삼소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④ ‘삼소저’는 천하가 어지러움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장임’은 ‘원건’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주’와 ‘최완’을 환대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규방에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소저가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②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 ③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벽주가 한 번 쏜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에서 여성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는군.
- ⑤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함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45. ㉠와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대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교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갯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귀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건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좋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 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더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걸식 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가 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건디지 못하여 전전걸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스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

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들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걸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 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걸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았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 선자 :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의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3)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39-42번, 고전소설.(2018년 6월 시행)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해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2. <보기>는 옹고집전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함장 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건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웅당 죽일 것으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이때 명 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날마다 첩서를 기다리시더니 문득 표를 보시고 대경하사 즉시 승상 유기로 대원수를 명하시고 유문정을 도우라 하시니 유 원수가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문정의 진에 이르니 문정이 반겨 적세 강성함을 이르고 장백 잡기를 의논할 새 유기가 문정더러 말하기를,

“이제 적병이 강성하여 졸연히 피하기 어려우니 이날 밤에 적병이 잠자기를 기다려 그대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우편을 치고 이덕으로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좌편을 치고, 나는 삼만 명을 거느려 전면을 치면 제 비록 용맹하나 어찌 당하리오?”

하고 약속을 정하고 밤을 기다려 방포일성에 사면으로 엄살하니 적장이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만나매 장 원수가 대경하여 급히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아까 천문을 보니 수상에 주성이 살기를 띠어 방위를 떠났으매 북병이 올 줄을 알되 어찌 이 같으리오.”

하고 풍백(風伯)을 불러 호령하니 풍우대작하며 벽력이 진동하니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돌아올 새 유 원수가 이덕을 거느리고 체처 들어가니 백운단이 맞아 싸워 십 합이 못하여 운단이 이덕을 베니 유기가 대로하여 바로 운단을 취하니 이정이 앞을 막아 유기를 치니 유기가 당치 못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장백, 이정 등이 일시에 엄살하여 유문정을 생금(生擒)하여 가져갈 유기가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관찰하여 머무니라. 장백이 문정을 잡고 대희하여 못내 즐기더라.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사문간에 철관도사가 이르러 말하기를,

[A] “너더러 이른 말을 어찌 잊었느냐? 천자는 곧 주 씨거늘 네 비록 옥새(玉璽)를 얻었으나 천명이 네게 있지 아니하거늘 공연히 민심만 소동케 하니 어찌 해를 면하리오? 하물며 황후는 너의 누이라 골육상잔(骨肉相殘)함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

하고 간데없는지라.

[B]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내게 과연 누이가 있더니 도적에게 잡히어 갔다가 옥을 볼까하여 소상강에 익사한 지 벌써 십 년이라. 이따금 생각하여 사후나 만남을 원하더니 이제 선생의 가르치심이 약차(若此)하시니 실로 괴이하도다.’

하였다.

[C] 군중에 호령하여 군사를 쉬게 하고 문정을 잡아들여 서안을 치며 크게 꾸짖기를,

“내 벌써 원 황제를 잡아 항복 받고 옥새를 가졌거늘 네 거짓 황제를 내고 천병을 항거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문정이 노하여 꾸짖기를,

① “우리 황상이 성신문무(聖神文武)하사 먼저 장안에 들어와 추호를 범치 아니시고 대위(大位)에 오르시며 벌써 국호를 정하시고 장 씨를 취하여 황후를 봉하시니 굳음이 반석같거늘, 너는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 만대에 더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빨리 죽이지 무슨 말을 하나뇨?”

장 원수가 대로하여 즉시 죽이고자 하나 황후가 장 씨란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노여움을 그치고 아직 진중에 두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적장이 장 씨라는 소식을 들은 황후는 그를 보려 하고, 이에 명 황제 주원장은 잔치를 열어 장백을 부르고자 한다.

‘승상 유기는 글을 장 원수께 전하니 우리는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군은 서쪽에서 군사를 일으킴에 천하 명장이 쫓기를 원하는지라. 무도한 원제를 내치고 창업고자 함은 피차일반이나 하늘이 먼저 주 천자를 피치게 하였으니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와 명 황제 먼저 장안을 얻으시니 그 공이 크고 장군은 옥새를 취하였으니 또한 큰 공이라. 이러므로 황제 대의를 생각하시고 이곳에 대연을 배설(排設)하여 모든 장졸로 그 공을 포하고자 하나니 장군이 만일 혐의치 아닐진대 한번 이르러 즐거움이 어떠하뇨?’
장 원수가 글을 끝까지 읽어 본 후 제장과 의논하기를,
“적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를 청하니 무슨 흥계 있음을 알지 못하나 아니 가면 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나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오?”

하고 이정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고 명진에 이르니 유기가 진문을 크게 열고 장 원수를 맞아 들어가니 양진이 상합하매 살기충천하더라.

명제가 맞아 동서로 나누어 앉으니라.
이때 황후가 주렴 사이로 자세히 보니 과연 장백이나 신수가 건강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나 성음(聲音)이 익은지라. 반가운 중 눈물 남을 깨닫지 못하더니 홀연 대풍이 일어나 주렴을 거두치니, 장백이 술잔을 받다가 눈결에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누이와 같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명제 그 연고를 물은대 장백이 탄식하기를,

㉠ “우리 서로 적국 되어 천하를 다투매 사정을 이를 바 아니로되 소장이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남매 의지하여 지내더니 동리 노고의 흥계에 빠져 외가로 가더니 중로에 도적을 만나 누이를 잃으며 그때 소장의 연유하므로 따르지 못하고 망극한 중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여류(如流)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하나 매양 누이를 생각하면 서러워하더니 아까 대풍에 주렴 중 부인을 보매 누이와 방불하기로 자연 비창하도소이다.”

상이 답을 하기 전에 황후가 이 말 듣고 좌우를 물리고 급히 나와 장백의 손을 잡고 방성대곡하며 오래도록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네가 내 동생 장백이나? 그 사이 죽었더냐 살았더냐?”

그때 도적에게 잡히어 갈 때에 중로에서 잃고 어찌할 줄 모르더니 소장장 원혼을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지하던 말이며 전후사를 이르니 장백이 슬퍼하며 희한하게 살어나 이처럼 만남을 신기히 여기고 즉시 계하에 내려 복지하며 옥새를 올려 말하기를,

[D] “나의 누이가 죽은 줄로 슬퍼하였더니 하늘의 도움을 입어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상이 그 처지를 혐의치 아니하고 황후를 삼으시니 은혜 망극하운지라. 수삼 년 전쟁에 민심을 요란케 하오니 만사무석(萬死無惜)하운지라. 복망페하는 진을 건우사 환궁하심을 바라나이다.”

[E] 상이 장 원수가 둔수사죄(頓首謝罪)하고 옥새를 올리는 것을 보시고 환희하사 위로하기를,
“짐이 이제 제업을 이루었으니 경의 공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리오.”

- 작자 미상, 「장백전(張伯傳)」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 대결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배경을 설정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신이한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인물의 비범함을 부각하고 있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백은 천문을 통해 적병이 쳐들어 올 것을 예상했다.
 - ② 문정은 유기의 지원을 받아 적을 급습했으나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 ③ 유기는 장백과 황제의 공적을 언급하고 장백의 우세함을 인정하였다.
 - ④ 황후는 과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조력자를 만나 목숨을 건졌다.
 - ⑤ 주 씨는 제업을 이루게 되자 그 공을 장백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은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원망하고 있다.
 - ③ ㉠은 다른 대상과 견주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은 개인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도덕적 가치를 판단의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천명(天命)’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늘의 명령으로 인간이 임의로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운명이다. 「장백전」에서 주원장은 대명 건국이라는 천명을, 장백은 황제가 될 사람을 찾아 그를 도와야 하는 천명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자신의 천명을 알고도 장백은 이를 부정하며 주원장과 황제의 자리를 두고 대립하게 되지만, 결국 천명에 따라 주원장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남매의 이별과 상봉이라는 작품 내적 장치는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① [A]에서 장백의 꿈에 나타난 철관도사는 장백이 품고 있는 계 획이 천명에 어긋나는 일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군.
- ② [B]에서 장백은 누이와 이별하게 된 사연을 떠올리며 천명을 거스르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있군.
- ③ [C]에서 장백은 원 황제에게서 확보한 옥새를 천명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황제가 될 인물이 자신임을 밝히고 있군.
- ④ [D]에서는 누이를 만난 장백이 주원장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남매 상봉이 천명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에서는 주원장에게 옥새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 장백이 결국 절대적 운명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길동이 대회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 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뒷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뭐라 하느냐?”

길동이 대답,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 글을 내어 왈,

[A]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되 무게 천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첩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근이라, 그 첩관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첩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홍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홍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께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다.”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려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궐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은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늠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를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오?”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뒷일은 어찌 된고? 다음 권을 볼지어다.

- 홍길동전 -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금급해한다.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③ 홍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라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② ㉡는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는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④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는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는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5)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26-28번. 고전소설(2018년 9월 시행)

28. <보기>를 참고하여 ㉠~㉤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 ② ㉡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③ ㉢ 은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④ ㉣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22~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

이때에 호국 강변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용이요 명은 훈이니, 대대로 명가(名家)의 자손이라.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밭 갈기를 일삼으나, 다만 슬하에 자식 없음을 부부 매일 한탄하기를 마지아니하더니, 일일은 용훈이 양친 탄 왈,
 “대대로 무후(無後)치 아니하더니, 내게 와서 후사가 끊일 줄을 어찌 알리오.”
 하며 자탄함을 마지아니하거늘, 부인 관 씨 대 왈,
 “불효 삼천에 무후한 죄 크다 하오니, 옛법으로 의논컨대 첩을 내침 직하오나 군자의 후하신 덕을 깊이 생각하와 지금 존문에 의탁하였으나, 봄날에 살얼음판을 디딘 듯하와 어찌 마음이 안연하리이까. 잠깐 듣사오니 태항산 천축사라는 절에 올라가오면 삼불이 극히 영험하시다 하오니, 고단함을 생각지 마시고 첩으로 더불어 정성으로 발원코자 하나이다.”
 용훈이 왈,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천하에 무자(無子)한 자가 뉘 있으리까. 그러하오나 한스러운 인생이오니 세존에게 정성으로 발원하여 보사이다.”
 하고, 즉시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전조 단발하고 삼칠일 목욕제계 후에 불전에 공양 축원하며 반년이나 지내니

외려 산속의 절에서 불도를 닦는 독실한 속인이겠더라.
 일일은 부인 관 씨 일몽(一夢)을 얻으니, 동해에서 동자 일인이 올라와 부인에게 세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는 천상 삼십삼천 도인도 차지하옵는 신장(神將)이옵더니, 옥황의 명을 받자와 ‘홍해국 태자를 베라’ 하고하시매 그 명을 받들었지만,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하시고 세상에 내치시매 갈 바를 아지 못하옵더니, 마침 천축사 세존께옵서 ‘부인에게 의탁하라’ 하시오매 왔사오니, 부인은 어여뻐 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반가이 여겨 품 안에 안다가 깨니 남가일몽이라. 즉시 용훈을 깨워 몽사를 여쭙으니, 용훈이 크게 기뻐 즉시 집으로 내려와 생남(生男)하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칠 삭 만에 생남하매,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곰의 등이요, 용의 허리며 잔나비의 팔이라. 소리 웅장하여 큰북 소리 같고, 비록 강보에 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빨이 두 줄로 박히고 앞니가 밖으로 한치나 내밀었으니, 훈이 크게 기뻐 왈,
 “이 아이 기상을 보오니 옛날 명인의 풍도를 간직하였으매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하고 이름을 문이라 하고 자는 벽력이라 하였다.
 (중략)
 연화 도사 왈,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니, 부자 정리에 떠나보내기 애달프겠지만 천명을 어기지 말고 노인에게 맡기시면 장래 귀히 되리이다.”
 훈이 다시 일어나 절하고 여쭙오되,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선생께옵서 귀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즉시 용문을 허락하거늘, 도사 용문을 데리고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 지리, 육도삼략과 황석공의 병법을 팔 년을 가르치니,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라.
 도사 왈,
 “이제는 술법을 배웠으니 대업을 이룰지라. 빨리 돌아가 빛난 재주를 세상에 베풀고 어진 성군을 만나 웅장한 이름을 천추에 전하도록 하라. 성군을 만나지 못할진대 너의 선생을 용납하게 말라.”
 하니 용문이 두 번 절하고 여쭙오되,
 “소자 팔 년을 선생 문하에 머물러 높은 재주를 배웠사오니, 어찌 선생의 교훈을 일본이나 어기리이까.”
 하고 하직을 아뢰니 도사 왈,
 “부디 좋은 때를 잃지 말라.” 하시더라.
 용문이 산문 밖에 나와 부모께 뵈오니, 부모가 크게 기뻐 팔 년 그리던 정을 못내 애연하더라. 인하여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날이 여쭙니, 용훈의 부부 연화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더라.
 용문이 일일은 ㉡강변에 나아가 명랑한 달빛을 따라 배회하더니, 먼 데서 크게 불러 왈,
 “내 말이 사나와 내 자식을 물어 죽이고 강을 건넜으니, 그 말을 잡아 주면 은혜를 갚으리라.”
 하거늘, 용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과연 말이 강변에 섰오되, 높기는 칠 척이요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 진실로 적토마라. 용문이 크게 기뻐하거늘, 그 사람이 가로되,

6)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22-25번. 고전소설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나이다. 이 말은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채치면 능행만리하고 한번 소리를 한즉 태산과 하해가 뒤놓는 듯하니, 마땅히 장군의 재주를 베풀지라.”

하고 말을 마치며 문득 간 데 없거늘, 심중에 크게 기뻐 즉시 말에 올라 시험할새 적토마 한번 소리하며 네 굽을 놀리니, 빠르기 살과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할러라. ㉔ 한곳에 다다르니 층암절벽상에 한 동자가 머리에 벽도관을 쓰고, 몸에 청룡포를 입고 암상(巖上)으로 내려와 읊하여 왈,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반사와 전장 기계(戰場器械)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 차후에 은혜를 잊지 말소서.”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용문이 괴이히 여겨 동자가 섰던 곳으로 나아가 보니, 석함(石函)이 놓여 있으며 광채 찬란하고 전면에 금자로 새겼으며,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 집개탁하라’ 하였거늘, 용문이 생각하되,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인데 석함에 명국 대사마 장군이라 하였으니, 유유한 천의를 알지 못하거니와 호국 왕상이 천의를 범코자 하기로,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명국에 돌아가 대장이 되게 하온 일인가, 명국을 내 함몰하고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 하고 강을 향하여 사례하고, 갑주를 갖추고 용천검을 들며 말에 올라 산하에 내려와 청수강을 바라보며 말을 채쳐 재주를 시험하니, 적토마가 한번 솟으며 소리하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하며 검광은 일월을 희롱하는지라.

- 작자 미상, 「용문전」 -

24. <보기>를 읽고 윗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서사적 장치들이 활용된다. 가령 꿈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거나 특이한 외양을 타고나도록 한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신물을 전해 주거나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 ① 관 씨의 태몽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옥도삼략과 병법 등을 용문에게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군.
- ④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군.
-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전장 기계를 전달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25. ㉔~㉚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화 도사에게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훈은 용문을 데리고 ㉔에 들어갔다.
- ② 용문이 ㉚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 ③ 용문이 ㉚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석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용문은 ㉚에서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⑤ ㉚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고, ㉚은 꿈속에서 체험한 공간이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문은 호국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호국의 명가이다.
- ② 용훈은 본디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 ③ 용훈 부부는 용문의 말을 듣고 연화 도사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꼈다.
- ④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머물며 반년 동안 삼불에게 발원하였다.
- ⑤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정답

| | | | | | | | |
|---------------------------|---|----|---|----|---|----|---|
|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25-27 | | | | | | | |
| 25 | ① | 26 | ⑤ | 27 | ⑤ | | |
|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42-45 | | | | | | | |
| 42 | ⑤ | 43 | ① | 44 | ② | 45 | ④ |
|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39-42 | | | | | | | |
| 39 | ③ | 40 | ③ | 41 | ① | 42 | ④ |
|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42-45 | | | | | | | |
| 42 | ① | 43 | ③ | 44 | ③ | 45 | ② |
|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26-28 | | | | | | | |
| 26 | ③ | 27 | ③ | 28 | ③ | | |
|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22-25 | | | | | | | |
| 22 | ⑤ | 23 | ⑤ | 24 | ④ | 25 | ②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CC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고3 학평 &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소설 기출 작품 목록

- <2018년 3월 학력평가>

- 남영로, '옥루몽'.
- <2018년 4월 학력평가>

- '옥주호연'
-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 '옹고집전'
- <2018년 7월 학력평가>

- '장백전'
-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시가복합)>

- '홍길동전'
- <2018년 10월 학력평가>

- '용문전'